

“의료기반 열악한 지역 우선”...전남, 30년 유치노력 결실 맺나

급물살 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15일 공식 발표하면서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 필요성을 꼭 짚어 지목하면서, 지역의료기반과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신설이 본질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에 미뤄 조만간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 확대 시점과 관련해 2022학년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여론에서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 결정될 경우 시너지를 거두기 위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분리하지 않고 한 지역에 두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 순천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으로 나뉜 전남 의대 유치 의지를 우선 한데 모아 전남권 의대 신설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일각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시 입지

당정, 의대 정원 확대 추진

1990년부터 번번이 무산

노인인구 비율 가장 높는데

전남 1만명당 의사수 평균이하

매년 78만명 진료 타·시도 유출

서부·동부권 유치갈등 재연 우려

를 전남도에 결정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감 있게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권 의대 신설 움직임은 지난 1990년 10월이 시초다. 당시 목포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순천대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유치 운동도 불이 붙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목포대 의대 신설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외면했다.

그동안 신설이 무산된 결정적인 원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가 지목된다. 의대 설립은 의대 총 정원 확정(증원·보건복지부)→대학별 의대 설립계획서 신청(교육부)→의대설립심사위원회 심의→의대 신설 인가(교육부) 순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첫 관문인 의대 정원 증원 단계에서부터 막혀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지난달 25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한상원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성공 기원 손편지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논리 외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 명분은 차고도 남진다. 우선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9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17%)이 전남에 쏠려 있다. 전남 27개 유인도서 중 의료기관이 없는 섬은 166개(60%)에 달한다.

여기에 전남지역 의사 수는 2019년 말 기준 3100명(공중보건의 657명 포함)으

로 1만 명당 의사 수는 24.7명에 그친다. 의료 수요는 높으나 1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8.9명보다 4명 이상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남에서는 매년 78만명(1조3000억원)이 상급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시·도 대학병원 등을 찾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도 있다.

생산 및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도 입증됐다. 2018년 교육부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같은 조

사에서 의대 및 부속대학병원 설립·운영으로 약 1조726억원의 재정지출이 기대됐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조4335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3355명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전남권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3년 정원 100명(학년)의 의과대학 개교가 목표다. 500병상을 갖춘 대학병원 건립도 계획에 포함했다.

총선을 전후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서

부권과 여·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각각 의대 유치 활동에 각각 나섰다. 지난 5월 26일 의대 유치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전남도와 목포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는 해당 지역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앞서 전남도내에 의과대학 우선 유치를 힘에 모으기로 약속했으나,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표면화된 이후 개별 유치 노력에 나서는 등 균열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성적지상주의에 목맨 폭력의 대물림 언제까지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0) 운동선수

하마터면 이예리사나 현정화처럼 세계적인(?) 탁구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 탁구코치에게 선수후보로 발탁되어 집중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첫날, 코치에게 펜 홀터와 웨이크 핸드 등 라켓 잡는 법과 기본 폼을 배우고 즐겁게 연습을 마쳤는데 짧은 커트머리 6학년 선배가 '야, 너, 이리, 와봐!'라며 불러 세웠다. 처음 운동 시작한 후배들을 붙들고 근기를 잡기 위해 기합을 준다는 것이었다. 어린 마음에 '탁구 안하면 그만이지...'하는 생각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가끔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선배에게 기합 받고 좀 두들겨 맞고 견뎠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상상해본다. 폭력의 예감만으로도 몸서리치게 싫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 날의 내게 도망치길 참 잘했다며 칭찬해주곤 한다.

최근 젊은 3중 경기 선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선배운동 선수의 가혹 행위를 접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다. 40여 년 전 우리 어린 시절은 인권보다는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해서 그랬다. 치타라도 선전국 대열에서도 내로라할 정도인 지금에 와서도 비인권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니 통탄스럽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만 스포츠지도자들에게는 건 강하고 건전한 정신과 마음이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운동선수가 주요한 모티브였던 고대 그리스 이래로 미술에서 드물게 운동선수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묘사된 그림을



말레비치 작 '운동선수'.

만나 반갑다. 순수추상의 창시자 혹은 절대주의 미술의 창안자로 꼽히는 카지미르 말레비치(1878-1935)의 작품 '운동선수' (1928-32년 작)는 회화의 색과 결 그 자체가 목적이자 했던 작가답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강한 운동선수를 색채만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상을 복제하는 대신 창조하고자 했던 말레비치는 이 작품에서도 구성적 재현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면서 단순하고 감각적인 인물의 화사함과 색상의 대비를 통해서 운동선수의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한국판 뉴딜 지역 현안 반영, 지역 정치권 한뜻으로 나서야

28개 프로젝트 '충성 없는 전쟁' 송갑석·이용빈·서삼석 의원 등 "광주·전남 기회...적극 나설 것"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충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등의 3대 축에, 9대 역점 분야, 28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경제 생태계에 지역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지역 사업을 내년도 국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산업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광주·전남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미래의 경제 생태계를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국비 예산과 관련,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의 한국판 뉴딜 참여를 이끌 지역 정치권 주자는 광주시장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이 꼽히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와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관 분야, 28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경제 생태계에 지역변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지역 사업을 내년도 국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산업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광주·전남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미래의 경제 생태계를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이 의원은 우선 광주가 준비중인 7천억 원 대의 '친환경 공기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인공지능 집적단지과 데이터 산업융합원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광주가 AI 시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무안·신안·영암)은 한국판 뉴딜에 농어촌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15일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과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며 "조만간 농어촌의 미래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핵심인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